

**<동문 인터뷰 제 1 회> - 대주전자재료 창업자, 임무현 대표(화학공학과 19 기 졸업)**



△대주전자재료 전경

2013 년 12 월 5 일. 경기도 시흥 정왕동 대주전자재료 사옥. 쌀쌀한 날씨 탓인지 긴장한 마음 탓인지 약간의 떨림을 느끼며 회장실로 들어섰다. 작업복을 입고 계셔서 언뜻 보면 직원과 구분이 가지 않을 것 같은 임무현 동문(화공 19, 대주전자재료 대표)께서 우리를 따스하게 맞아주셨다. 정겨운 목소리에 긴장은 눈 녹 듯 사라졌고, 뒤이어 임종찬 동문(공화 33 대주전자재료 부사장)께서도 도착하시어 우리는 같은 건물 내 회의실에서, 구내식당이 특별히 준비한 점심을 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대주전자재료에 대한 소개>**

먼저 대주전자재료는 1981 년 설립되어 전기.전자 부품재료의 부품용 소재개발에 전념한 기업으로,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한 대표 강소기업이다. 대주전자재료는 창업 당시 에폭시 절연재료를 시작으로 30 여년간 도전성 페이스트, PDP 패널용 Glass 재료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 및 대만, 중국, 미국, 유럽 등 세계 10 여 개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기상합성법에 의한 금속 나노 분말 양산 기술의 확보, 3D PDP 용 형광체 및 최고 효율의 태양전지용 전극재료의 개발 등을 신 성장 동력으로 구축하여 2010 년도를 기점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대주전자재료는 “인재와 기술을 중시하고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한다”는 기업이념 하에 연구와 제조를 추구하는 등 바람직한 기업문화 구축에도 앞장서고 있다.



△회의실에서의 점심. 왼쪽부터 임종찬 부사장님, 임무현 회장님, 본인, 임영규 간사장님

#### < 첫 직장과 사회적 관심 >

대주전자재료의 창업자이자 현재 대표이사인 임무현 동문께서는 화학공학과 19기 졸업생이시지만, 일반 화학공학도와는 다른 길을 걸어 오셨다. 학부를 수석으로 입학한 수재였으나, 졸업을 앞두고 당시 인기 직장이었던 충주 비료공장이나 울산 정유공장이 아닌 영등포의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하신다. 동문께서 일하게 된 ‘조흥화학’은 사카린을 만들기 위한 기초 화공약품들, 염산, 황산, 가성 소다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당시 1960 년대의 급속한 산업화를 이끌어간 구로공단의 수출 주도형 중소기업들 중 하나였다. 이 곳에서 시운전 엔지니어로 일하던 6개월 동안, 공장 근로자들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생생히 경험하며 그의 관심은 크게 바뀌었으며,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 그 해 12 월 달, 공과대학 교수님들 찾아가 이러한 고민을 상의 드렸고, 학교로 돌아가 상과대학으로 학사편입을 한다. 당시의 심정을 동문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술회 하셨다: ‘나는 파라 톨루엔 설편 아미드 (para-toluene sulfone amide)공정 일을 담당하고 있었지. 그러다 어느 날 머리가 빨갛게 물들어 버린 것을 깨닫고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 <상과대학 편입과 새로운 목표>

상과대학에 들어갈 때의 목표는 사회가 움직이는 원리를 알고, 그 안의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사실 화학공학과에 입학하였을 때에는, 전공 공부보다는 다른 곳에 더 흥미를 가지셨다고 한다. 학부 1~2학년 때는 역사, 정치, 사회, 경제, 심리학 등에 관심이 많아, 오히려 넓은 분야의 책을 제한 없이 독학하는 것에 심취하였다. 이러한 동문님의 성향은 나중에 상과대학에서 배우게 된 학문과 잘 맞았고 실제 산업현장에서 느낀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와 시너지를 일으켜, 치열하게 공부 할 수 있던 밑거름이 되었다. 임무현 동문께서는 가깝던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라면으로 끼니하며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수 많은 책들을 읽고 서울 각 대학의 학생 및 지식인들과 교우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셨는데, 이 동안 졸업 후 자동차 정비공이 되어 운수업계에서 노동운동을 일으켜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인터뷰 중 회상에 잠기시는 임무현 동문님(오른쪽).

#### <노동자 시절에서 드러나는 내재된 집념과 리더십>

상과대학을 졸업한 후, 임무현 동문께서는 1969 년 마포의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엔진정비공으로 일하게 된 것을 시작으로 장장 11 년 동안이나 영등포, 구로 지역의 돌아다니며 노동자로 근무하셨다. 노동자로서의 삶은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다. 대형 시내버스 종점에서 정비공으로 일할 때는, 밤 10 시부터 새벽 4 시까지 워낙 낡은 버스들을 정비해야 해서 꾸준한 운동으로 체력이 좋았음에도 채 한 달도 버텨내지 못했다. 10 년 넘는 세월을 신념 하나를 위해 일부러 험한 환경을 선택해 살아간 그의 삶에서, 창업의 어려움 또한 극복할 수 있었던 강한 집념을 엿볼 수 있다.

우리는 이 시절의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중 현대자동차 A/S 공장에서 엔진 정비공으로 일하던 시절 에피소드에서는 그의 타고난 리더십을 엿볼 수 있었다. 당시 임무현 동문이 일하던 엔진반의 반장은 회사 소유의 부품을 수리하여 몰래 판매하는 등 개인적 벌이에 몰두하면서, 아래 엔진 정비공들에게는 일을 과도하게 시키는 사람이었다. 기술공 집단에서 반장의 권력은 막강하였고, 이로 인해 다른 동료들은 불합리한 상황에서 불평도 못하고 고통스러운 나날만 보내고 있었다. 그 때 임무현 동문이 소극적이던 동료들을 설득하여 회사에 투서를 내고 파업을 주도함으로써 엔진반 반장의 사표를 이끌어내기에 이른다. 동문께서는 한마디로 ‘쿠데타’ 였다고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 후 동문께서 반장이 되었고 회사 부품을 빼돌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일은 철저히 금하고, 고객에게 성의껏 서비스를 제공하여 팁을 받는 것은 옳다고 가르쳤다. 팁은 직원들이 함께 나누는 것으로 직장 문화를 바꾸어 갔고, 또 업무가 끝나면 밤에 정비공들을 모아놓고 자동차 정비사 자격증 시험 공부도 직접 가르치시며 부하 직원들의 학습과 성장에 앞장서셨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5 명의 정비공 그룹에서도 그의 원칙과 사람 중심의 리더십은 빛을 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 <대주전자재료의 설립>

앞의 일화에서 드러난 그의 어떤 고난에도 마다하지 않는 집념과 뛰어난 리더십은 마치 창업과 기업인의 길이 임무현 동문의 필연적인 숙명처럼 느껴지게 한다. 그러나 의외로 대주전자재료의 창업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1980 년 1 월, 부천의 한 유리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임무현 동문께서는 국가 보안 기관에 의해 구속되신 후, ‘과학적 사회주의 운동’이라는 공안기관의 판단 아래 더 이상 노동 생활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

동문님은 노동운동을 청산하고 화학공학 지식을 활용하여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셨고, 당시 컬러 TV 등 전자제품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증가를 보고 대부분 수입되고 있던 전자재료를 국산화하는 사업에 도전하게 된다. 그 때 국산화 된 재료로는 PCB 기판의 납땜(납과 주석의 합금으로 만든 바 혹은 전선 형태의 납 재료)과 전선(Lead wire, 구리선에 주석 도금을 한 제품)정도로, 임무현 동문께서 폭시 절연 재료(내성 혹은 기계적 강도를 높이기 위한 재료)의 국산화에 성공하며 대주전자재료는 국내 전자 재료 분야의 시작을 열게 된다.

#### <기업 경영의 철학과 대주전자재료의 미래>

대주전자재료가 무려 30 여년을 넘게 한 분야에서 탄탄한 강소기업으로 발전해 온 데에는 동문님의 다음과 같은 신념에 기인하고 있다: '평소에 비슷한 품목을 가지고 가격 경쟁을 하려고 창업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세계 일류 회사들처럼 최첨단에 있는 새로운 제품들을 내 놓으려고 해야 합니다. 독창성을 가지고 가면 처음에는 R&D 비용이 들지만, 제품이 나오면 선발 이익을 가지게 됩니다. 나머지는 벤치마킹으로 뒤따라 레드오션에 푹 빠져 가격 싸움으로 먹고 살게 되지요. 2 등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이런 사업은 농사로 치면, 남이 다 추수해 놓은 논에 가서 벼 이삭을 줍는 일이나 다름없어요.'

이처럼 남의 기술을 따라 하는 사업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임무현 동문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전자기업들이 최첨단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어 연계된 재료 분야에서도 멀지 않은 미래에 커다란 성공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신다. 대주전자재료 역시, 2008년에는 삼성전기와 함께 협력하여 재료를 개발함으로써 기술적으로나 재무적으로나 많이 성장하였고 2010년에는 동반성장의 최고 사례로서 자랑스런 삼성인상도 받았다.



△ 경영철학을 말씀하시는 임무현 동문님. 그의 눈빛에서 오랜 세월에도 수그러들지 않은 강한 열정이 느껴졌다.



‘아직까지는 대주전자도 선진업체를 벤치마킹하고 있지만, 100 년 가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는 내부에서 스스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 목표가 이루어지려면 긴 역사적인 시간이 필요하지요. 축적된 인프라와 전통이 있어야 가능하지 몇 십 년의 벤치마킹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무현 동문께서는 이를 위해서는 연구나 조직의 사고 방식이 크게 변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며, 기업 구성원 개개인이 국제적 수준의 자주적인 인간성과 일류 의식을 기초로 창조적인 연구 분위기가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 전시실 관람. 대주전자의 기술·경영 성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우측 상단에는 여러 시상식 사진이 걸려있다.



◁ 대주전자재료의 체력단련실. 일반 직원들을 위해 만들어놓은 골프 연습실이 인상적이었다.



△ 인터뷰를 마치고 배웅해 주시는 임무현 동문님.

몇 시간의 인터뷰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도, 우리는 아직 임무현 동문이 내린 삶의 선택과 결과들에 대해서 의문이 남아 있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의 신념을 위해 고난을 마다 않을 수 있을까? 큰 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계를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한 국가의 특정 산업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문답을 통해 모든 해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치열하게 고민하여 삶의 방향을 정하고, 선택한 길의 고난은 묵묵히 감내하는 그의 자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르침이 있음을 느꼈다. 더불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발현되던 임무현 동문의 인간 중심의 리더십에 잔잔한 감동을 받았으며, 그의 바람대로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100 년 기업으로 성장해갈 대주전자재료의 긍정적인 미래에 큰 기대를 가져본다.

<끝>